

# 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社團 韓國漁港協會  
法人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98

TEL. 544-0610  
544-0611  
FAX. 544-0611

月刊: 비매물

등록번호: 라3459

등록일: 1988년2월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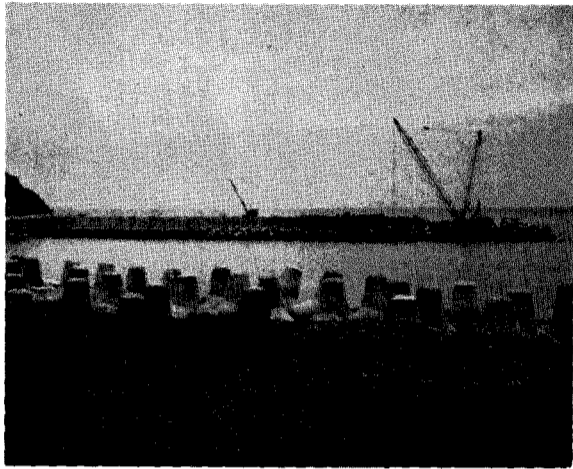
會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漁港基盤  
擴充으로  
福祉漁村건설

## 91年度 漁港建設事業 豫算

# 624億7千2百萬원최종計上 要求額보다2百88億원削減

### 國會에 審議요청 올해수준에 머물러



■ 명년도 어항건설사업비 예산안은 올해 수준인 624억 7천 2백만 원이 예상됐다.

'91년도 어항건설예산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91 예산		증△감(B-A)	
	'90예산(A)	요 구 조정(B)		
계	62,021	91,336	62,472	451(0.7%)
1·3종어항	54,032	81,100	57,480	3,448(6.4%)
2종어항	3,901	10,000	4,901	1,000(25.6%)
국고채무액	4,000	-	-	△4,000
기타사업비	88	236	91	3(3.4%)

## 2種港에 25.6% 增加한 49億1百萬원 1·3種港 5百74億8千萬원

수산청은 91년도 어항건설사업비 예산안을 올해 수준인 624억 7천 2백만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수산청이 91년도 어항건설사업비 예산안을 올해 수준인 624억 7천 2백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예산안은 1·3종어항 574억 8천만 원, 2종어항 49억 1천만 원, 국고채무액 4천만 원, 기타사업비 88백만 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90년 예산 대비 0.7% 증감이다.

## 漁港使用 實態 점검

### 1·3種港대상, 利用効率化도모위해

수산청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종어항 10개항의 사용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1·3종어항 10개항으로, 어항가운데 이용도가 높지 않은 어항을 찾아내어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어항의 정비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漁港지급중 投資 期待에 크게 未洽

# 理想漁港「건설 蹉跌 憂慮

91년도 어항건설사업비의 예산안과 관련해 624억 7천 2백만 원으로 최종 확정된 예산안이, 어항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항건설사업은 어촌지역의 개발과 어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건설进度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1·3종어항의 건설进度가 더딘데다, 2종어항의 건설进度도 기대 이하로 남아 있다. 이는 어항건설사업의 효율성과 투자효과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 漁港개발이 곧 水産業發展 명명해야

### 1·3種港 확대 등 無爲로 끝날 우려

어항의 신규지정을 비롯한 어항 지정 규정의 대폭적인 완화는 어항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그러나 어항건설이 단순히 어항의 확대로만 그치지 않고, 어항을 통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어항건설은 어촌지역의 개발과 어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단순히 어항의 확대로만 그치지 않고, 어항을 통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漁港會館 建立基金을 募金합니다**

會員權益 基金 다지고자

韓國漁港協會

■ 수협논현동지점 039-01-2553  
■ 주택은행언주로지점 482601-87-002039

## 어촌따라 어항개발 어항따라 관광개발

어촌지역의 개발과 어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어항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어항을 통한 관광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어항건설은 어촌지역의 개발과 어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단순히 어항의 확대로만 그치지 않고, 어항을 통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0年 漁港工事 中間點檢 座談會

# 勞賃 등 크게 올라 施工業界 苦戰

### 工事、大體로 順調 : 補修·補強 사업 未洽 아쉬워

## 豫算不足 심각 각 作業場 마련 등 어려움

▲사회: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작업장을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협회에서 금년도 9월 15일 실시 예정인 619인원인 1, 3종어항에 580억원, 2종어항에 39억원의 배정되었습니다. 총부자항 29개항 중 10개항은 금년

내에 완공하고 나머지 19개항은 계속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내역은 방파제 2천 200m, 물양장 2천 200m, 호안 450m, 파제 1100m 등 총 6천 151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설계, 계약, 자재, 재해, 감독관 등 각종비용의 순으로 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를 보면 어항예산은 수산예산의 약 35%에 지나지 않는 데도 어항예산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금년도 집행관제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수산청 어항공사는 규모가 적으므로 품질을 적절하게 맞춰서 적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부대공사업이 어

▲사회: 다음엔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  
 ▲사회: 순정식(한국어항협회 회장)  
 ▲조종제 수산청 어항과장  
 ▲이종만 부사장(한국어항협회 부회장)  
 ▲이종만 부사장(한국어항협회 부회장)  
 ▲이종만 부사장(한국어항협회 부회장)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다음엔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豫會令」改正에 協會연 實感 官給 시멘트 調達 隘路 많아

▲사회: 다음엔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主要工程 마무리 災害 예방에 最善 漁港法 港灣法 개정 關聯 補完 단계

▲사회: 다음엔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만 부사장: 어항공사에 대한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항공사 예산은 수산예산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新規 許可만도 3個月 걸려 山林法 개정으로 石山開發 어려움 많을 듯

▲사회: 석산개발에 대해 새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만 부사장: 석산은 기존개발보다는 별다른 허가나 승인 없이도 개발할 수 있는데 신규개발을 위해서는 3개월이나 걸립니다. 특히 경찰서와

▲이종만 부사장: 관공사감독 등으로 인한 재해는 없었습니까? 조종제과장: 올해는 태풍으로 인한 재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경험과 기상예보 정확성을 기

▲이종만 부사장: 관공사감독 등으로 인한 재해는 없었습니까? 조종제과장: 올해는 태풍으로 인한 재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경험과 기상예보 정확성을 기

▲이종만 부사장: 관공사감독 등으로 인한 재해는 없었습니까? 조종제과장: 올해는 태풍으로 인한 재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경험과 기상예보 정확성을 기

▲이종만 부사장: 관공사감독 등으로 인한 재해는 없었습니까? 조종제과장: 올해는 태풍으로 인한 재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경험과 기상예보 정확성을 기

# 調達廳發注 규모 10億 원 이상

## 迅速工事 위해 大幅上向 조정

### 勞賃單價 등 再調整기로

#### 建設部 不實施工에 방위해

정부는 공사추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청의 계약의뢰하는 공사대 상범위를 현행 2억 원이 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공종도 급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계약제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내년의 해당부처에 제출, 반영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또 최근 건설기능인력의 부족에 따른 시공노인의 단점으로 정부 노임단가의 격차가 심화돼 부실시공, 경영부실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감안, 금년말까지 건설공사의 안전과 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예산절감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정부 노임단가 기준도 마련, 내년중에 관계부처와 협의 확정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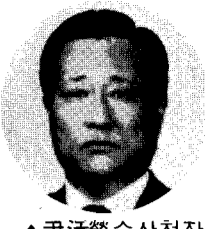
건설부는 이와 함께 연내로 건설시장의 대외 개방, 면허화대실시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건설업의 규모별 공종별 생산성 비용구조로 분석하고 특히 건설산업구조개편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日、全國漁港大會 孫井植 회장 招請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10월 25일 개회되는 제42회 전국어항 대회에 참석해 줄 것을 초청받았다.

佐藤総夫 일본전국어항협회회장이 손정식회장의 환영회 회장에게 보낸 초청장서한 일일어항협회의 우호친선을 보다 깊게 하고 어항시책에 관한 어항관계자의 모의사항을 도출하기가 된다고 밝히고 어항대회후 高興어항과 海洋深層水研究所를 시찰할 예정이다.

참석하는 일본어항협회 대표인 高知市 高知지바산스타에서 열릴 전국어항대회에 전국에서 수천명의 어항인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와 국회의 대한 건의문도 채택한다.



▲尹沃榮 수산청장

▲어항공사추진현황 9월 14일 어항공사추진현황을 보면, 9월 22일까지 2,981호의 어항공사에 착공하였고, 9월 22일까지 1,232호의 어항공사에 준공하였다.

▲어항공사추진현황 9월 14일 어항공사추진현황을 보면, 9월 22일까지 2,981호의 어항공사에 착공하였고, 9월 22일까지 1,232호의 어항공사에 준공하였다.



### 화보

▲김갑부씨(수산청시실과장)의 장녀 최연영씨(9월 22일) 12시 서초천주교 회관에서 혼례를 올렸다.

▲수산청의 8월 30일 어항과 박정규씨(토목기사)를 영수한 어항공사부수사로 승진발령한 김현진씨(실과장)와 최연영씨(장녀)의 혼례를 올렸다. 장지근 실과장도 참석하여 혼례를 올렸다.

### 인사

▲이환범씨(주식회사대영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서 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2-22호 D동.

▲강국희씨(합자회사 대한 토건사 대표) 서울 서초구 반포2동 한신3차아파트 25동 206호

### 파 임

▲한재수씨(한국수산신문 사장) 8월 28일 모친상을 당했다. 장지근 실과장이 조문했다.

### 피 정

▲이환범씨(주식회사대영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서 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2-22호 D동.

▲강국희씨(합자회사 대한 토건사 대표) 서울 서초구 반포2동 한신3차아파트 25동 206호

### 이웃끼리

▲정동일씨(주식회사대영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서 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2-22호 D동.

▲성기현씨(국립수산기술 훈련소 소장)

### 부귀이사

▲전기섭씨(합자회사 대한 토건사 사장)

▲강국희씨(합자회사 대한 토건사 대표이사)

▲최봉형씨(주흥공업주식 회사 대표이사)

▲이종만씨(주흥공업주식 회사 부사장)

▲한영환씨(신봉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환범씨(주흥공업주식 회사 부사장)

### 第3回 漁港寫眞公募

#### 많은 應募바랍니다

참가자격: 본회 회원, 어항관련 종사자 및 원, 어항관련 기관 직원, 수상인

출품대상: 어항을 중심으로한 수상관련 사진

출품기간: 90년 4월 1일 ~ 10월 31일까지

작품심사 및 입상작품 발표

심사: 심사위원은 사계권위자로 구성, 엄격 심사를 거쳐 금상 1천 원, 은상 500원, 동상 200원

시상: 90년 12월 중 개최, 출품작품은 본회에 귀속, 어항지 어항소식에 게재.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98번지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 135-0100

금상: 20만원  
은상: 15만원  
동상: 10만원  
가작: 상패

시상: 90년 12월 중 개최, 출품작품은 본회에 귀속, 어항지 어항소식에 게재.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98번지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 135-0100

### 建設技術진흥책 마련

### 技術競争자극

정부는 가격경쟁위주의 현행 공사입찰제도를 기술 경쟁위로 전환하고 건설기술연구단지와 건축연구소를 조성, 설립하는 등 내년부터 오는 2천년까지 10년 동안 3단계로 나누어 건설기술진흥을 추진키로 했다.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93년까지 1단계로 연구기관을 조성하고, 94년부터 97년까지 2단계로 연구성과를 축적하며, 98년부터 2천년까지 3단계로 기술의 선진화를 꾀한다.

### 官給 레미콘리소

관급 레미콘가격이 크게 인상, 올해 9월 3일부터 내년 9월 2일까지 적용된 조달청은 9월 1일 14개 대형레미콘 생산업체와 가산 270만 규모의 관급 레미콘 구매입찰에서 평균 평단 3만 3천 618원(부가세 포함)으로 지난해 3만 1천 713원보다 약 5.4인상 계약키로 했다.

올해 계약된 관급 레미콘의 규격별 단가는 △25-1210-18의 경우 m 당 3만 5천 390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 원이 올랐고 △25-1210-12는 3만 1천 713원보다 3만 1천 713원보다 약 5.4인상 계약키로 했다.

### 漁港施設 사용 告示 改正

수산청은 지난 8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방법 개정(90.6.30)에 따른 조치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어항시설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 “정성스레 매듭을 푸는 마음으로”

各種印刷·圖書出版

### 株式會社 文苑社

서울特別市 鍾路區 通仁洞 149-5  
TEL. 739-3911 ~ 5(代) 3911  
FAX. 739-3915  
果川事務所 502-6978

# 어·항·교·실

## 漁港計劃樹立의要領

(16)

### 水域施設

**1. 박지(泊地) 및 조선용(操船用) 수역**

박지 및 조선용 수역의 계획에 있어서는 안전한 정박, 원활한 조선, 양육, 출어준비등의 작업을 가능케하는 정온이 유지되는 충분한 넓이의 수면과 충분한 수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박지 및 조선용 수역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① 양육용 박지
- ② 준비용 박지
- ③ 휴계용 박지
- ④ 특정목적용 박지
- ⑤ 묘지(錨地)
- ⑥ 조선용(操船用) 수역
- ⑦ 기타 수역

더욱 근년에 있어서는 활어축양, 활어리축양조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축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요 수면에 대하여 배려하여야 한다.

**2. 수역면적 산정의 수순**

수역시설의 산정은 실측분석, 장래예측, 소요량의 계산, 총합

정리의 순으로 행하며, 계선용 박지(양육용박지, 준비용박지, 휴계용박지, 특정목적용박지를 총칭하여 말한다) 조선용수역, 항로용수역, 묘지 및 황천시사용박지의 각 면적을 구한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활어축양용, 활어리축양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타 수역면적도 구한다.

**3. 박지 및 수역의 면적산정 방법**

가. 양육용 박지

양육용 박지는 양육용 계선안에 따른 전용수역으로서 어선을 계선안에 옆으로 붙이는데 필요한 소요박지 면적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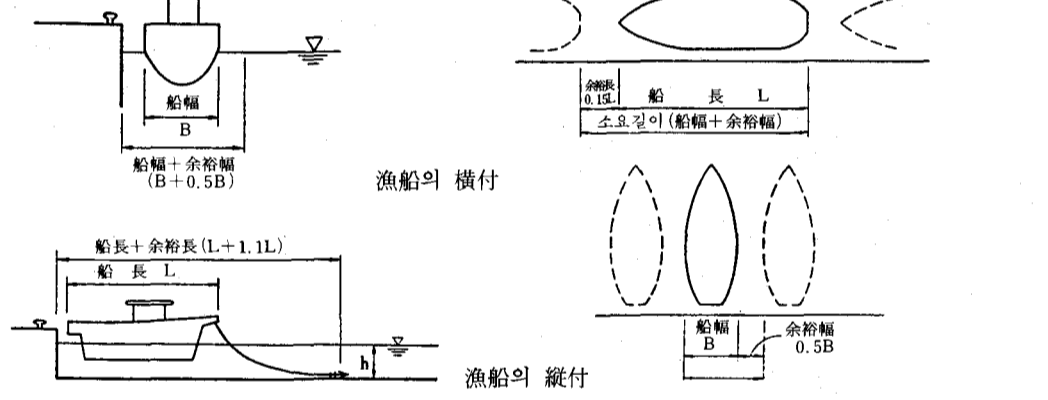
$A_1 = \sum l \cdot B_1$  (수심별)  
 $A_1$ : 양육용 소요박지면적( $m^2$ )  
 $l$ : 양육용 계선소요연장( $m$ ) (옆으로 붙이는 소요길이)  
 $B_1$ : 계류폭( $m$ )  
 옆으로 붙이는 소요길이 = 선장(배길이) + 여유길이( $m$ )  
 계류폭 = 선폭 + 여유폭( $m$ )  
 여유길이 =  $0.15L$  (L: 배길이)  
 여유폭 =  $0.5B$  (B: 선폭)  
 나. 준비용 박지

준비용 박지는 얼음 연료등을 전용시설을 이용하여 적재하기 위한 준비용 계선안이기에 때문에 전용수역에서 어선을 계선안에 옆으로 붙이는 것이므로 앞의 "가"에 준하여 소요박지 면적을 산정한다.

다. 휴계용 박지

휴계용 박지는 휴계용 계선안이기에 때문에 어선은 계선안에 세로로 붙이는 것으로하여, 소요박지 면적을 산정한다. 휴계시에는 어선은 닻을 놓고 있기 때문에 여유폭의 결정은 수심, 닻의 종류, 닻을 놓는 방법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A_2 = \sum l_2 \cdot B_2$  (수심별)  
 $A_2$ : 휴계용 소요박지면적( $m^2$ )  
 $l_2$ : 휴계용 계선안소요연장( $m$ )  
 $B_2$ : 계류폭( $m$ )  
 세로로 배를 붙이는 소요길이 = 선폭 + 여유폭( $m$ )  
 계류폭 = 배길이 + 여유길이( $m$ )  
 여유폭 =  $0.5B$  (B: 선폭)  
 여유길이 =  $1.1L$  (L: 배길이)



뜻은 갈조식물(褐藻植物)의 모자반과에 속하며 우리나라 및 일본의 특산물이다.

일본에서는 고유의 일본명(명)에 한자로 鹿尾菜 또는 洋栖菜로 표시하기도 한다. 중국명으로는 猪尾菜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부 이남에 서식하고 특히 제주도와 서남해안에서 많이 생산된다. 예로부터 터스(이)로 이용하였는데, 일본에서는 수출품으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뜻의 몸체는 원주상(圓柱狀)이며, 분기하여 수지상(樹枝狀)을 이룬다. 수메미란의 어린 것은 연한 녹색이다. 어린 나뭇잎(多肉質)의 주경(主莖)은, 가장자리에 붉기가 있고, 잎자루가 있다. 어린 조락성(早落性)이므로 유채에만 있다. 잎이 발달한 성장한 어린(幼若)은 방망이모양(또는 긴 반월상)의 가지(枝)를

## ● 톳 ●

### 주로 일본으로 수출

### 갈습 · 철함량 많아

가지는데, 그 끝이 팽대하여 가지 끝(葉端)의 기포(氣泡)가 된다. 따라서 유채와 좀자란 것과 형태가 매우 다르다. 톳은 알수이 아니고 생식기(生殖器)는 작은 곤봉상이며, 결과(果實)의 거드름(果殼)이 몇 개씩 모여서 생긴다.

뜻의 생육지대는 외양(外洋)에 면한 평탄한 또는 경사가 완만한 암반이다. 경사가 급할수록 적게 착생하고 수직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부착층은 평판 수면을 상한선(上線)으로 하고, 그 아래 약 60cm까지의 범위이며, 그 하한선은 저조성보다 약 30cm 위쪽이다. 파도가 심하게 부딪치는 곳은 그 부착층의 상한선이 다소 격심하지 않고, 다소 조성이 상하로 움직이는 오목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착생 밀도가 높고 발육이 좋은 곳은 양초(洋草)의 산층부이다.

뜻은 큰크리튼나(큰바위)에 잘 안붙고 매끈한 암반이 노출된 곳에 착생이 잘 안된다. 그러나, 얇고 오목한 암반이 많아 이 다소 소용돌이 바위에 잘 붙는다. 그리고 여름과 매끈한 돌이 다 산호초에 덮여 있는 곳에 비교적 잘 붙는다.

부착면의 경사도는 착생 상태와 무관한 관계가 있어서 수평 또는 경사가 완만한 곳에 잘 붙고, 경사가 급할수록 잘 붙지 않는다. 수직이고 매끈한 곳에 붙는 착생하기 어렵다.

뜻의 성분은 무기질(특히 칼슘과 철)의 함량이 대단히 많다. 갈습의 인에 대한 비율도 높아, 갈습 보합(보합)으로 관찰한다. 건조물 100g 중의 요오드 함량은 40~60mg이다.

뜻은 조직이 유연하고 원주상이며, 내부에 기포가 있어, 자속(自縮)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조립제품의 소재로 적합하다. 건조물은 부원(浮元) 때는 물에 쉽게 흡수, 팽윤된다.

회분이 극히 많고, 이것이 자엽에 녹아 나오기 쉽다. 삶기 전에 미리 기름으로 가볍게 볶거나 튀겨서 삶으면 이들의 용출과 조미료의 침투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고 풍미도 좋아진다.

맛도, 향기도, 담백하고 점질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두부를 이용하여 지지는 조리를 하면 좋다. 또 이런 때는 콩이나 콩 제품을 병용하면 더욱 좋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경제이론가들이 적지 않다. 정책이 입안, 수행되는 과정과 실제의 경기(景氣)변동은 시차(時差)를 두고 따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경제가 과열되고 있을 때, 이를 식히기 위해 경기진정책을 쓴다고 할 경우, 경기(景氣)의 과열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고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서 정책이 집행될 때에는, 경기는 과열단계를 벗어나 이미 진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따라서 경기진정책에서의 또다른 경기진정대책은 경기를 필요이상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논리에서 대중적(對症的) 정책전환은 경기변동의 폭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여 결국은 정책의 역효과만을 크게 한다는 주장이 편다.

이런 생각은 각 경제주체가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각각의 경제적 판단과 행위를 한다고 전개한다. 예컨대 경기가 과열기미를 보인다고 판단했을 때, 기업과 가계(家計)는 과열경기를 예측한

## ‘나하나쯤..’ 생각이 경제파탄

### 국민적 협조있어야 경제 안정

이러한 소비자의 예상 내지 기대는 쌀의 가수요(假需要)를 늘리고 공급이 정해진 상태에서 쌀값은 오르게 마련이며 오르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해진다.

해마다 겪는 돼지파동도 마찬가지이다. 돼지고기 값이 크게 떨어지면 돼지 사육을

희미 경제는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나 기업인 또는 전문가만의 전유물(專有物)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에 있어 국민개개인 각 가정은 가장 훌륭한 정책의 판단자로서 정책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적

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국민적 협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어떤 정책도 앞서서 처럼 무위(無爲)로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의 중요성은 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한 일부의 투기 행위가 경제 전체의 움직임까지를 저해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내 빛만이 빛이고 나라의 빛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생각도 결코 옳은 생각이 될 수 없다. 나라의 빛은 결국 국민 각자에게로 쏠려지는 것이며 모두의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홍년은 농민 만의 홍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입(輸入)이 느는 것은 수입업자가 수입을 늘렸던 때문만이 아니며 그저 수입이 느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결국 크고 작은 경제활동이 모두 나와 직접·간접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는 결코 전문가나 경제관료, 기업인만의 관심사가 아니며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협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일부의 무분별한 투기가 전체경제를 크게 저해

### 물가오름세 심리에다 가수요 겹치면 물가등귀

해쳐 나갈 수 있는 경우에도 저만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전체를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거 몇년 동안 물가가 안정되었던 시기는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한 국민적 협조의 결과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반면 나 혼자만이 치부하

● 經 · 濟 · 交 · 實

● 經 · 濟 · 交 · 實